



제269회 임시회
시정질문 · 답변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이 한 영 의원



“자연재해 예방과 하천 생태계 보존을 위한 하천 준설이 필요합니다.”

“하천변 체육시설 정비로 시민체육활동 진흥에 앞장서야 합니다.”

“물의 도시 대전을 수상레저스포츠 도시로 만듭시다.”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일괄질문 · 일괄답변)입니다.



이 한 영 의원

◎ 이한영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김진오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과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 이상기온, 국지성 집중호우는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몇 해 전 발생한 집중호우로 정림동에서 시민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림동은 집중호우 발생 후 수해 복구작업을 완료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됐으며, 2026년까지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고지배수로, 맨홀펌프장, 관로 정비, 공원 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시 정림동 문제는 피해 아파트의 경우 저지대에 있고 배수구의 유입구가 막혀 통수가 안 돼 월류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경우는 하천에 인접해 있어서 지역에 강우가 집중되거나 상류지역에서 집중호우가 발생되어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올라갈 경우 하천이 범람하여 도심침수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전에는 3대 하천인 갑천과 유등천, 대전천이 굽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전시민의 젖줄인 갑천은 대전을 가로지르는 금강의 큰 지류로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를 이루는 대둔산에서 발원하여 여러 지천들이 합류되고 대전의 도심을 관통하여 금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갑천은 대덕대교를 기준으로 상류로 올라갈수록 하천의 만곡도가 증가하여 편수위가 발생하여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하상에는 퇴적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퇴적이 지속되면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퇴적된 주변으로 수목이 성장하는데 이는 유속을 저하시켜 시간이 지날수록 퇴적층의 넓이와 크기가 증가하게 되며 이른바 수림화 현상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하천의 수림화는 물의 흐름을 정체시켜 수질오염, 퇴적토의 누적을 더욱 가중시키고 수리학적 통수능력이 저하되어 집중강우 시에 하천 범람 및 생태계 환경변화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천은 월평공원의 육상생태계와 하천생태계가 공존하는 공간이며 그 사이에는 전국 유일의 도심 속 하천습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준설을 통하여 하천의 수위를 확보해놓지 못할 경우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이 범람하여 천혜의 자원이 쉽게 유실되고 말 것입니다.

하천관리의 기본원칙은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으며, 하천의 준설은 하천의 수림화 현상을 억제하고 도심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일방적인 준설 강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천의 생태적 가치도 고려해야 하며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유수소통이 안 되어 발생할 수 있는 침수를 막기 위해서 양쪽의 중요한 측면을 감안해서 하천의 준설을 요구하는 겁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는 더 강력해지고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갑천이 제 기능을 회복하고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하천 준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대전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3대 하천변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체육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서울시에서는 ‘서울아 운동하자’라는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민간기업과 함께 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서울시 산하 공원캠페인으로 스포츠시설 환경 개선과 기부문화 확산은 물론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을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중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노후된 천변 체육시설의 정비 부분입니다.

강서 개화꽃살장, 구로구 안양천변 체육시설, 도봉구 무수천 농구장, 영등포구 안양천변 체육시설 등 천변에 있는 체육시설에 환경개선 개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 농구장과 족구장 바닥을 안전한 우레탄 바닥으로 재정비했고 기존의 노후 농구골대는 새로 교체하였으며 추가로 안전펜스를 설치해 사고 방지와 더불어 밝고 역동적인 농구장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특히 농구장 바닥에는 트릭아트로 표현해 시민들이 사진 촬영을 할 때 3D 조형물이 배경에 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어 농구를 즐기는 시민뿐만 아닌 일반시민들도 농구장에서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또한 기존 인라인스케이트장의 경우는 역주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주방향이 표시된 트랙으로 재정비해 인라인스케이트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전시의 경우도 3대 하천에 많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사업소와 체육진흥과, 각 자치구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은 119면에 이르며 그중 106개소를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우리 시 3대 하천 체육시설물 상태를 확인해본 결과 대전천에 위치한 게이트볼장은 사용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시설관리·유지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닥 침하와 배수불량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게이트볼 용구를 보관할 창고와 공중화장실 등이 없어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 고령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게이트볼에서 파크골프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게이트볼장을 파크골프장으로 개보수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앞서 보여드렸던 서울의 농구골대와 비교하여 우리 시에 있는 농구골대는 골망은 찢어져 있으며, 안전펜스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축구장도 타 지역은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여 먼지 날림이나 안전사고 발생을 낮추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마사토 축구장도 아닌 일반 토사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시설 모두 운동을 즐기는 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하천변을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날아가는 공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펜스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체육시설이 무엇인지 알아보실 수 있으신가요?

바닥은 다 일어났으며 언제 쌓였는지 모를 토사가 방치된 이 시설은 바로 인라인 스케이트장입니다.

체육시설 안내표지판조차 없어 어떤 체육시설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작년 말 대전시에서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2조 7,000억이 투자되는 3대 하천 푸른물길 그랜드플랜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랜드플랜도 좋지만 그보다도 시민들에게 인접해있는 천변의 체육시설 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다소 주춤했던 시민들의 야외활동에도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게 노후 생활체육시설 인프라를 정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시민 체육활동에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대전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는 천변의 체육시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3대 하천의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시장은 2019년부터 5년 동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약 1,130억을 그 당시 투자한다고 하였고, 자전거 사고를 줄이고 자전거 부담률을 높여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도 줄여나갈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3대 하천 자전거도로를 보시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눈이 온 이후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녹은 눈이 제대로 배수가 되지 않아 도로 노면이 결빙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일반차도와 같이 배수기준을 적용하여 설치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여 시민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전천 천변도로는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를 겸하는 도로로서 도로 폭은 좁고 하상도로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어 도로 난간이 미설치된 구역들이 많아 낙상과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커 보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공원 및 하천 자전거도로 폭을 양방향 기준으로 3m를 준수해야 하지만 아쉽게도 이 도로는 2m를 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사진입니다.

먼저, 보행자도로 우레탄 포장을 보시면 많은 지점에서 파손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아예 유실되어 포장조차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의 경우는 노면 포장이 파손되어 있으며 나무데크 다리는 노후화돼 누더기마냥 부분 보수되어 있고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보였습니다.

저 파손된 부분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동 중에 높낮이 차이가 발생해 넘어지거나 헛디딜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전거는 낙차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 아스팔트를 재포장하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표지를 분리형 표지판으로 교체하는 동시에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도로 노면표시 설치의 물론 시인성과 안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시에서도 하천의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열심히 유지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알지만 현실은 아직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대전의 사통팔달인 3대 하천의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3대 하천 도로시설 정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의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의 도시 대전을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대전에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갑천, 대전천, 유등천이 도심을 관통하여 흐르는 물의 도시입니다.

도심지 심장을 흐르는 3대 하천은 안정적인 치수기능은 물론 생태, 역사, 문화, 레저 등 다양한 정책적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는 정책적으로 3대 하천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역대 대전시정에서도 3대 하천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도심 내 친수공간이 지역주민들에게 자연환경으로서 쉼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문화·레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수상레저스포츠는 지역개발의 중요한 요소로 현대인의 여가활동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사진은 갑천에 위치한 갑천 수상스포츠체험장입니다.

카약, 페달보트, 스탠딩보트, 동력보트, 딩기요트, 윈드서핑 등 총 6개 종목의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갑천 수상스포츠체험장은 2012년에 개장하여 8년간 무료체험으로 운영하다 2020년부터 유료로 전환하였지만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한카누협회와 대전체육회가 주관·주최한 전국드래곤보트대회에 총 1,4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전국 규모의 대회를 갑천 수상스포츠체험장에서 개최했고 2019년에는 수상스포츠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각종 수상기구 체험 프로그램, 어린이 물놀이장, 스포츠용품 베품시장 운영과 함께 전국패들보드 챌린지대회를 통해 패들보드 요가 및 투어링 체험 행사를 진행한 바 있어 레저스포츠 특화 공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2년 이용자는 9,745명에 불과하여 체험장을 이용한 시민들은 대부분 1회 방문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체험장 이용 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심지어 갑천 수상스포츠센터가 유료화된 것을 모르는 시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갑천 수상스포츠체험장이 대전시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시설로 전락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난 제268회 정례회에서 갑천 수상스포츠체험장 운영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지적한 바 있고 인천 송도, 잠실 석촌호수 등의 사례를 통하여 갑천 수상스포츠체험장 운영사업의 다각적인 고민을 주문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시 53분 영상자료 개시)

(15시 54분 영상자료 종료)

대전은 물과 과학의 도시입니다.

이 두 자원이 한데 위치한 곳이 바로 갑천이므로 이곳을 국제회의복합지구와 연계한 대전의 핵심 관광지로 개발해야 합니다.

지난해 대전컨벤션센터와 둔산대공원 일원이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갑천 수상공원을 인근의 다양한 인프라와 연계한 수상레저스포츠 특별지구를 지정하여 수상레저체험시설 확대는 물론 동호인 활동 지원, 시민 여가시설 확대, 주차장 확충으로 시민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갑천 수상공원을 국제적인 명품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음악분수와 물놀이장 신규 조성 용역설계비가 2023년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다목적 물놀이장이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이 위치하고 약 5천여 세대, 1만 3천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서구 만년동 KBS방송국 뒤 대덕대교 옆 천변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수준의 명품 음악분수가 설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노잼도시가 아닌 즐잼도시, 수상레저도시 대전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전시는 갑천 수상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갑천 하천 준설 필요성과 하천변 체육시설 정비, 음악분수 설치, 다목적 물놀이장 설치 그리고 대전시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에 대하여 행정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갑천의 기능회복과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야외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하천변 생활체육시설 개선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갑천을 인근의 다양한 인프라와 연계한 수상레저스포츠 특별지구 지정의 초석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행정부시장 이택구

행정부시장 이택구입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서는 갑천 하천바닥 준설 문제, 하천변 체육시설 정비 문제, 수상레저 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대전시의 하천정책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갑천 하천바닥 준설 관련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에는 3개의 국가하천이 흐릅니다.

이런 지형은 사실상 광역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축복인 면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폭우의 경우에 물을 빨리 빼준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대전이 비교적 수해에서 좀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3개의 큰 하천이 도시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교통문제도 생기게 되고요, 도시계획적으로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천의 기능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해 예방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생태환경적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시민들이 친수공간으로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이 때로는, 과거에는 재해예방적 측면이 중요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생태환경적 측면하고 친수공간 이용에 관한 측면이 훨씬 더 중요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하천기능의 회복이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갑천 준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환경부의 하천기본계획 그리고 금강유역환경청의 관리계획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준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가하천의 관리권이 과거에는 국토부에서 국토관리청을 통해서 관리가 되었었는데 이 부분이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치수적인 측면뿐 아니라 생태환경적인 측면이 굉장히 앞으로 강조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환경부의 갑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200년 빈도의 홍수 예방에도 제방여유고가 안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준설목적의 하천점용허가를 가급적 배제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에 예측해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월 대전세종연구원에 의뢰해서 3대 하천의 홍수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하도정비 기준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5개 지역에 부분준설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5개 지역은 물론 뿌리공원 인접 유등천 등 6개 지역에 대해서 연차별로 하도정비를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주신 것처럼 우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하천의 수림화 예방을 목표로 해서 오니토 제거, 지장수목 제거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하도정비에 대해서는 우선 시행하는 6개 지역의 사업효과를 면밀히 살핀 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변 체육시설 정비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실제 환경국장을 하면서도 굉장히 겪어봤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조용히 산책을 하고 싶어 하고 어떤 분들은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더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또 어떤 시민들은 아름다운 꽃단지를 더 많이 조성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것은 대도시의 경우에 시민들의 욕구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의미인데요, 어쨌든 하천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이용객들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욕구를 하천에서 다 수용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책적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재 하천 체육시설물이 157개소로 파악되고 있고 이것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를 위해서 연간 국비 약 30억 원 그리고 시비 약 6억 원을 투입해서 하천

체육시설물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3대 하천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 질문에서도 지적해주신 것처럼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둔치에 파크골프라든가 이런 걸 설치했다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고령자의 경우에는 화장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하도 밑에 둔치 쪽에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방 쪽에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부지여건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걸 설치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게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면밀하게 살펴야 되겠고, 또 체육시설 활동을 하는 것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같은 것들을 건립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부지여건상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가능성이라든가 이용의 편의성을 잘 고려해서 그것이 잘 조화될 수 있게끔 종합적인 여건을 봐가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변 도로시설 정비 관련인데요, 3대 하천에 관리되고 있는 총 영역을 말씀드리면 한 80km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상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녹지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가 산지를 제외한 녹지공간이 가장 넓다고 꼽히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도로구간에 대해서 매년 4km 정도 구간을 9억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이전 사업물량 예산의 2배 정도를 산정해서 총 8km 그리고 19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천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산책하는 분들과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서로 겹쳐서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고가 안 나도록 분리를 했습니다만 여건이 아직 여의치 않아서 못 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테고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난간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노면표시 등등, 또 노면상태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은 바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하천 안으로 차량이 원활하게 들어가기 어렵고 그래서 제설, 그러니까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이를 제설해 나가는 방법이 사실상 여의치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설하기 위해서는 블레이드 같은 걸 달아서 물리적으로 눈을 치우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방법은 제설제를 살포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천의 특성상 제설제를 살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일단 물리적으로 눈을 제거해서 빙판 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시민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은 앞으로 예산 여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더 증액시키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갑천 수상스포츠체험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갑천 주변 다양한 인프라와 연계하면 갑천 수상스포츠체험장은 시민들이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의 지적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아까 지적해주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중단이 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정상화를 위해서 운영시간 확대 그리고 노후 수상장비 정비, 사진공모전 이런 것들을 추진했습니다만 아직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자 만족도조사도 해봤는데요, 종합적인 만족도는 81%를 조금 웃도는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정비해 나간다면 갑천 수상스포츠체험장 일대가 아주 훌륭한 공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한빛탑 음악분수도 보강이 됐고 또 엑스포다리 무빙라이트라든가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가 들어오면서 낮은 물론 밤까지도 아주 훌륭한 아름다운 명소로 부각되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갑천 음악분수 건립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 관람석까지 준비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특히 야경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수상스포츠체험장 활성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해서 우리 3대 하천이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고 아름답고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각오를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